



와카야마 우라시마 호텔 온천여행

상상 되나요? 태평양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



태평양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우라시마호텔의 동굴온천 '보키도'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가슴이 시릴 정도로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바다 한가운데 박힌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리스 동굴 온천...

탁 트인 태평양을 바라보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은 잠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여기는 높이 15m의 천연동굴 온천인 보키도(忘歸洞). 옛 이지역 번주였던 토쿠가와 요리미치가 이곳을 찾았을 때 경치에 매료돼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래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이들은 조용히 태평양을 바라보며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일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온천. 뱃부 등 유명 온천지역이 많지만 눈앞에 태평양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우라시마호텔은 그 어느 곳보다 휴양지로 으뜸이다.

와카야마 난카츠우라 온천 지역에 위치한 우라시마호텔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간다. 배를 타는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색다른 운치가 있다. 작은 섬 전체가 하나의 호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수만 600실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온천 리조트다.

푸른바다 한눈에 동굴온천 '보키도'

별빛 보일듯 말듯 '하늘 바다탕'

작은 섬 전체가 하나의 호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면 호텔측이 제공한 유카타를 입고 '온천 순례'에 나서보자.

호텔은 본관, 니기시관, 닛소관, 산조관 등 총 4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호텔 내에 산재한 6개의 온천을 찾아가기 쉽도록 다른 색깔의 띠가 바닥에 붙어있다.

특히 154m에 이르는 가파른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면 도착하는 산상관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드넓은 태평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를 자랑한다.

우라시마 호텔의 즐거움은 바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온천. 앞서 언급한 동굴온천 '보키도'를 비롯해 '하늘바다탕' '자석탕' 등 각기 다른 특색을 가

진 실내·노천 온천이 있다. 천연동굴 온천인 '보키도'에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하늘 바다탕'에서는 하늘의 별빛이 보일 듯하다. 노천 온천은 탁 트인 야외에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그밖에 수영장, 신사, 낚시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호텔 앞 바닷가에서는 호텔측에서 대여받은 낚시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온천에서 땀을 뺐다면 이제는 든든히 속을 채울 차례. 산상관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새우, 고등어, 참치 등 40여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끽할 수 있는 뷔페 식당이 있어 식욕을 자극한다.

수시로 운행하는 호텔 전용배를 타고 물으로 나와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수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마을 골목 골목마다에는 문을 연지 100년이 넘는 양품점과 오밀조밀한 찻집, 세월의 무게가 쌓인 작은 모밀집 등 순박한 어촌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와카야마시의 상징인 와카야마성

가는 길

와카야마현에 위치한 우라시마 호텔에 가려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광주에서 출발할 때 인천 공항을 이용해도 되지만 부산에서 출발하면 훨씬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김해공항과 부산 사상터미널 사이에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공항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비행기 탑승 시간은 약 1시간. 이후 JR을 이용, 난카츠우라역에서 하차, 아시바시항에서 전용 배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면 된다.

고전적 정취가 물씬

1585년 세워진 '와카야마성'

구시모토 동쪽 해안

크고 작은 암석 신비로워



기암괴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시모토의 '하시쿠이이와 암석'

오사카 남쪽에 위치한 와카야마는 간사이 지방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온천과 대자연의 모습이 어우러진 곳으로 아직 숨겨진 보석같은 곳이다.

와카야마성은 와카야마시의 상징이다. 지난 1585년 세워진 것으로 화재로 인해 한번 불타버렸지만 지난 1958년 복원됐다. 와카야마성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벚꽃과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봄과 가을. 성의 맨슈카쿠 최상층은 와카야마 시내를 관광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또 옛날 양식을 그대로 살린 다실도 한번 둘러볼만하다.

와카야마성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와카야마 현립근대미술관도 인상적이다. 지난 1970년 개관 후 지난 1994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친 미술관에서는 숲으로 둘러싸인 와카야마성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당초 와카야마와 관련된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했던 데서 벗어나 최근에는 유명 외국작가들의 컬렉션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의 'la minoufouromachie'를 비롯해 미술관 로비에 자리하고 있는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 마크 로스코의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와카야마시 해변에 위치한 인공섬 마리나시티의 유럽풍 유원지 '포르트 유럽', 신선한 해산물과 현지 특산물을 전시하는 구로시오 시장 등도 놓치지 아까운 곳이다.

와카야마현 최남단 구시모토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하시쿠이이와 암석은 약 850m에 이르는 기암괴석군이다. 40개를 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암석이 일직선으로 바다 위에 즐지어 서 있는 모습은 신비롭다.

각각의 바위가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특히 바닷물이 들고 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색다른 매력이다. 일본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꼽히는 곳이다.

24m의 해저 관광터널과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구시모토 해중공원도 둘러볼만한 곳이다. 배말바다에 투명한 관광선을 타고 20분 동안 해저 탐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일본 와카야마=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5년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10월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케리움 홀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 까지 30%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홍스페이스 SPACE

☎ 062 226 7567